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다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2025.12.14 (634호)

2. 아침묵상

디모데전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화,수,목,금 아침 6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3. 대강절 기간

오늘은 교회절기로 대강절 세번째 주일입니다.

4. 성탄주일&송년주일&신년주일

12월 21일 주일은 성탄주일로 지킵니다.

12월 28일 주일은 송년주일로 지킵니다.

1월 4일 주일은 신년주일로 지킵니다.

저희 교회는 12월 25일 성탄예배가 따로 없으며, 12월 31일 송구영신예배도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비디오파이어 1:6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TOGETHER COMMUNITY CHURCH

예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지난 주 (12/7) 현금 통계**

선교구제 현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현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1,045.00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다함께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c	예레미야 애가 3:17-26
교회소식 Announcement	유형선
말씀선포 Sermon	기다림
*찬양 Praise	유형선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다함께

주일대표기도

12월 21일(성탄예배) 12월 28일(송년예배)

장헬렌

최성호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본당)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 (방학중)
아침묵상	(화,수,목,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무너질 성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조직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약 성경이후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은 그저 예배를 드리는 장소, 예배당에 불과 합니다. 그곳에만 마치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로 착각하는 것은 아직도 구약 시대를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참성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요, 주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의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함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저 성전이 무너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며,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더 나아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모든 인생도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듯 무너져 내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참성전이 회복되고 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자아에 희생당한 우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기도의 집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종말의 때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종말의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세상이 좋아지는게 아니라 더 어려워지고 힘 약해 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한 징조가 세상 역사에 나타나지 않았던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역사는 끝을 보여주는 징조로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징조를 징조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끝을 보지 못한 채 자신의 꿈만 생각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것을 원하게 하는 삶의 노선으로 바꿔 놓기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신자가 두려워 할 것은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늘 염려와 두려움에 불들려 있는 것은 자신의 꿈이 실현되지 못하고 무너지며 전혀 원하지 않은 삶에 부딪힐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자신을 거룩한 존재로 가꾸어 가기 위한 길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을 향한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한 존재이고 이루어야 할 소원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충만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참된 현실이 된다면 '다 이루었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이루심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